

착한 목자	천주교 싱가포르 한인공동체 Korean Catholic Community Office Blk A3-7, 98 Hougang Avenue 8, S538791	주임신부: 박재우 사도 요한 사목회장: 최수 사도 요한
------------------	---	-----------------------------------

☏ 사제관: 6925-7873, 사무실: 6288-9771, 팩스: 6288-9551, <http://cafe.daum.net/kccsg>

주 일 미 사	주일: 오후 2시(대성전)	주일 학교(토)	유초등부: 방학, 2026년 2월 개학예정 중고등부: 방학, 2026년 2월 개학예정
	토요일 저녁 주일미사: 4시 소성당(12/6 ~ 개학전) * 매월 마지막 주는 가정 주일로 토요일 미사가 없습니다.		예비신자 교리
평 일 미 사	시간: 화/오후 7시 30분, 수~금/ 오전 10시 30분 장소: 소성당	고 해 성 사	평일: 미사 전 후 고해실(A2-8) 주일: 미사 30분 전 성전 고해소.

대림 제1주일

오늘은 대림 제1주일입니다. 전례력으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오늘, 교회는 마지막 때에 대하여 묵상하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세상이 끝나면 그것으로 우리 모두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시는 주님에게서 구원을 얻습니다. 대림 시기를 시작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늘 깨어 있도록 합시다.

12월 교황님의 기도 지향 <분쟁 지역의 그리스도인들>

전쟁이나 분쟁 지역, 특히 중동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평화와 화해와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전례위원회 회의 11월 30일(주일) 미사 후 A3-5

12/2(화)~12/7(일) 이창섭 안토니오 신부님 미사 집전

위의 기간 동안 폐낭 신부님과 바꿔서 미사, 판공성사 해주시기로 합니다. 판공성사 보시고 사무실에 기록해주세요.

토요일 저녁 주일미사 안내 <토요일 4시, 소성당>

12/6(토) ~ 주일학교 개학전까지 토요일 저녁 주일미사가 4시에 있습니다. 주일에 부득이하게 미사참례가 어려운 분은 토요일 저녁미사에 참여해주세요. 매달 마지막 주는 가정주일로 토요일 미사가 없습니다.

2026년 매일미사 정기구독 신청 안내

매일미사 1년 구독료, 항공운송료 포함 \$40입니다. 11/30(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주세요.

대림초 판매 안내

대림시기를 밝혀 줄 대림초(\$25)를 사무실에서 판매합니다.

단체별 연말결산 정리 및 예산안 작성

분과별, 단체별로 2025년 1년 동안 지출한 금액을 결산해주시고, 2026년 예산안을 작성하여 12월 28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주세요.

빈첸시오회 성탄맞이 인도네시아 바탐 테레사 기숙원 방문

12월 13일(토)로 예정되어 있던 바탐 크리스마스 행사가 수녀원 사정으로 12월 20일(토)로 일주일 연기되었습니다.

참여 가능하신 신자분들께서는 12월 6일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경으로 인해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번호로 문의바랍니다.

* 문의 : 이영학 사목(9619-6683), 정연재 앤디사벳(9826-6417)

* 빈첸시오 후원계좌 PARK JAEWOO OCBC 543289292001

싱가포르 착한목자 청년회 안내

우리 본당 청년회는 만 19세 ~ 35세 미혼 형제 · 자매님들이 모여 신앙을 나누고, 교우들과 소통하며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입니다. 파정, 봉사, 친교 활동 등을 통해 청년들이 편안하게 참여하고 신앙 안에서 서로를 지지 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관심 있는 청년분들은 언제든지 편안하게 연락주세요. [Instagram : kcs._.youth](#)

* 청년회 2026년 임원안내

· 회장 : 이규리 글리마 (8809-3230)	· 부회장 : 이윤호 안젤로
· 총무 : 남궁준 유스티노	· 부총무 : 김서희 스콜라스티카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

(11월23일) 주일헌금 \$1,345, ₩32,000.

감사헌금 익명 \$500

교무금 내신 분 (11월 22일~11월 28일)

강건호 스테파노 11,12월, 권기백 프란치스코 11,12월,

김경숙 아나타 11월, 김희진 사도요한 9-12월,

목정숙 마리세실리아 10-12월, 박미숙 세실리아 10-12월,

배준오 마카엘 7-12월, 신미경 안젤라 11,12월, 여경은 발렌티나 6월,

이영미 세실리아 11,12월, 이은주 비비안나 11,12월, 익명 3-12월,

이철규 즈카르야 11월, 정아브리함 사도요한 11월,

정찬자 베로나 10-12월, 조민경 마리안나 11,12월,

■ 16세대 \$5,450.

◆교무금 감사헌금 입금 계좌 : DBS 113-008886-3 PARK JAEWOO

※ 온라인 송금할 때 **입금자 이름을 꼭 기재**하거나 사무실에 알려 주십시오.

사무실과 소성당 이용 시간

평일 : 화요일 오후 6시 ~ 9시,

수, 목, 금요일 오전 9시~오후 3시 (점심시간 : 12시~1시).

토요일 : 오후 1시 ~ 8시, 주일 : 12시 ~ 5시

※ 주소 변경이나 귀국할 때 사무실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미사 참례자 수(지난 주)

23(일)	평 일			
2:00	25(화)	26(수)	27(목)	28(금)
169	18	41	12	28

***동헌 가족** : 김보미 디아나 · 김우태 가정

저자씨

◆제1605호◆

Korean Catholic Community, 1259 Upper Serangoon Road, Singapore 534795 Tel: 6288-9771 Fax: 6288-9551

2025년 11월 30일(가해) 대림 제1주일



안 프로브스트 <최후의 심판>
1505년경, 패널에 유화,
암부르크 쿠스트하alle, 독일

입당송 하느님, 당신께 제 영혼 들어 올리나이다. 저의 하느님, 당신께 저를 맡기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원수들이 저를 보고 좋아라 날뛰지 못하게 하소서. 당신께 바라는 이는 아무도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이다.

제1독서 이사 2,1-5 <주님께서 영원한 평화의 하느님 나라로 모든 민족들을 모아들이신다.>

화답송



기 빠 - 하 며 주 - 님 의 집 - 으로 가 리 - 라

- “주님의 집에 가지!” 할 때 나는 몹시 기뻤노라. 예루살렘아, 네 성문에 우리 밭이 이미 서 있노라. ◎
- 그리로 지파들이 올라가네. 주님의 지파들이 올라가네. 이스라엘의 법을 따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네. 그곳에 심판의 왕좌, 다윗 집안의 왕좌가 놓여 있네. ◎
- 예루살렘의 평화를 빌어라. “너를 사랑하는 이들은 평안하리라. 너의 성안에 평화가 있으리라. 너의 궁 안에 평안이 있으리라.” ◎
- 나의 형제와 벗들을 위하여 비노라.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주 우리 하느님의 집을 위하여 너의 행복을 나는 기원하리라. ◎

제2독서 로마 13,11-14ㄱ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복음환호송



알 렐 르 야 알 - 렐 르 야 알 렐 - 르 - 야 Fine

- 주님, 저희에게 당신 자애를 보여 주시고 당신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복음 마태 24,37-44 <너희는 준비하고 깨어 있어라.>

영성체송 주님이 복을 베푸시어, 우리 땅이 열매를 내리라.

오늘의 성가 입당송: 92 봉헌: 511 · 219 성체: 502 · 188 특송 파견: 96 (성가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듣고 따름에 관하여

임기선 베네딕토신부
교동 본당 주임



하느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건넵니다. 그렇다면 그 진리는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기보다는 그저 즐기고 지나가는 축제일로 성탄을 맞이합니다. 오늘 복음 말씀처럼 노아 때 사람들과 별다른 차이가 없게만 느껴집니다.

창세기에서 세상 창조부터 아브라함 전까지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은 노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홍수 이야기입니다. 홍수 이야기는 인간 창조를 후회하시고 그 죄에 대한 별을 내리시는 하느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감정이 ‘후회’라는 인간의 언어로 묘사되어 있지만, 이 말은 창조주와 피조물들 사이의 평화가 깨졌음을 극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원점으로 되돌아간 세상에서 새 출발점으로 선택 받은 이는 노아였습니다. 노아는 어떻게 하느님의 선택을 받았을까 묵상해 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을 때, 동시대 사람들은 그를 조롱하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행동을 변호하거나 변명하지 않았고, 묵묵히 하느님 명령만을 따랐

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그의 의로운 인품을 느껴봅니다.

반면 노아 시절 사람들의 악함이 노아의 의로움과는 대조적으로 표현되고 있음이 눈에 띕니다. 사람들이 ‘타락하였다’라는 동사가 노아의 이야기에서 일곱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데, 성경은 그들이

‘변성하여 땅을 채우라.’라는 하느님의 축복을 오히려 ‘폭력’으로 ‘땅을 가득 채웠다.’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느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그 모든 수고와 노고에 대해서 침묵하면서 단지 그가 모든 것을 하느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하였다.’ 라며 간략한 표현을 할 뿐입니다. 극도의 절제된 표현과 간략한 이 묘사는 어떤 수려한 글보다 노아의 순종을 더욱 돋보이도록 강하게 여운을 줍니다.

노아 이야기에서 그는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할 따름입니다. 그는 자신의 의지와 판단에 따르지 않습니다. 그는 하느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며,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노아의 태도에서 우리는 신앙인의 모습을 배웁니다. 하느님을 따르는 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우치게 됩니다.

인간의 위대함은 어떤 놀라운 일을 하거나 할 수 있다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놀라우신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수 있음’에 있습니다. 신앙은 그 위대함을 이루는 길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며 주님과 함께 걷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은 사는 위대한 신앙인입니다.

■ 대림시기란 무엇인가요?

우리가 달력을 통해 오늘의 날짜를 알 수 있듯이, 가톨릭 교회 안에도 달력이 있는데 이것을 전례력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전례력을 통해 각 시기와 대축일, 축일을 지내며 예수님의 삶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1년을 보내는 것을 전례주년이라고 합니다. 대림 시기란, 예수님의 탄생일인 주님 성탄 대축일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4주간을 말합니다. 대림 시기 동안은 우리에게 오실 아기 예수님을 위해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준비하며 기다립니다.

미사 때 대영광송을 부르지 않으며, 대림초에 불을 밝혀 각 주간을 기념합니다. 사제는 속죄와 보속을 상징하는 보라색 제의를 입고, 대림 제3주일에는 기쁨을 상징하는 장미색 제의를 입습니다.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대림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새 전례력의 첫주일, 우리는 다시 신앙의 시계를 ‘기다림’의 시간으로 맞춥니다. 12월이 되면 일찍부터 성탄절을 알리는 화려한 불빛이 여기저기 가득해지고, 우리도 성탄을 준비하며 설레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교회는 조용히 우리에게 지금이 바로 ‘깨어 있음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전합니다. 오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상당히 무서운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대개 우리는 이 장면을 심판의 순간으로 생각해, ‘누가 구원받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묵상합니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이런 궁금증도 가질 수 있습니다. “버려진 이는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을까?”

실제로 심판의 모습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비유처럼 구원받은 이들이 갑자기 사라지면 어떨까요? 어쩌면 버려진 이는 일터 한가운데에서 ‘같이 있던 그가 어디 갔지? 사라졌네?’ 정도로만 인식할지도 모릅니다. 즉, 자신이 버려졌다는 사실조차 모른채, 여전히 같은 자리에 남아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혹은 하느님이나 구원에 관한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사라진 사람만 찾을 수도 있습니다. 버려졌음을 인지하지도 못하며, 구원이라는 개념조차 생각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하느님 없이도 여전히 바쁘게 살아가는 나, 주님의 부재를 느끼지 못한 채 익숙함 속에 안주하는 나, 하느님이 내 삶에 없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나’, 이것이야말로 가장 두려운 영적 상태가 아닐까요? 버림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하느님이 우리를 떠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더는 그분의 현존을 감지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곁으로는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미사에도 참여하며 봉사도 하지만, 마음은 점점 하느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멀어짐을 느꼈다면 다행입니다. 복음에서 남겨진 이가 자신이 구원받지 못함을 깨닫고 하느님을 찾으며 울부짖는다면 과연 하느님께서 그를 내버려두시겠습니까? 반드시 그에게도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멀어짐을 느꼈다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인지했다는 의미이고, 그렇다면 이젠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기왕 버스 놓쳤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잠이나 더 자자.’ 이런 태도라면 우리는 하느님께 그 무엇도 바랄 수 없을 것입니다.

대림시기는 그런 영적 무감각에서 깨어나기 위한 시간입니다. “**깨어 있으라.**”라는 예수님의 권고는 단순한 준비 요청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현존에 민감해지라는 초대입니다. 하느님이 나를 떠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의 숨결을 잊어버렸음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주님은 감각을 잊은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복음 속 버려진 이가 나라면 서둘러 깨어나야 합니다. 대림은 단순한 기다림의 시기가 아니라, 잊어버린 감각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깨어있어야라. 너희의 주인이 어느날에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마태 24.42)